

“한국-일본 원유 공급 줄이겠다”

사우디, 9월에도 원유 공급감축 유지 ... 당초 계약분의 7%까지 축소

사우디아라비아가 9월에도 한국과 일본에 대한 원유 공급량을 연례 계약분에 비해 6-7% 감축한 선에서 공급할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ARAMCO로부터 통지를 받은 중개인들은 8월11일 사우디 측의 원유공급 감축 유지 방침을 전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석유회사인 ARAMCO는 3개월째 한국과 일본에 당초 합의한 계약분보다 최대 7% 감소한 원유를 공급하게 된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7월 1일 873만배럴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8/12>